

# 선택의 갈림길에 마주한 지금

-머지않은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에 관하여.

2017\*\*\*\*\* 국어국문학과 김영은

##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1984>와 디스토피아
  - 2-2. <에코토피아 비긴스>와 에코토피아
  - 2-3. 현대사회와 미래사회
3. 결론
4. 참고문헌

## 1. 서론

나는 이번에 <사(史): 시대와 정신> 수업을 통해 조지 오웰의 <1984>와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 비긴스>를 읽게 되면서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선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는 각각 유토피아에서 파생되어 장소를 나타내는 topos라는 말에 붙인 완전 상태를 나타내는 dys라는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sup>1)</sup>와 생태주의를 뜻하는 그리스어 Ecological이 합성된 단어이다. 이 둘의 기원인 단어 유토피아는 영국의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가 만든 말로, 이 세상에 '없는 곳(no place)'이지만 그러나 '좋은 곳(good-place)'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한번쯤 자신만의 이상적인 완전한 가상세계를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극단화하여 사회를 비판하는 디스토피아 문학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 탓에 많은 사람들이 생태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지향하면서 에코토피아 또한 우리 현실에 더 가깝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

1) 디스토피아 [dystopia], 『네이버 지식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개념에서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가상세계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두 개의 사회가 공존하는 것은 모순적인 사회일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가상세계 말고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상세계를 예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하게 예견된 세계들 중에서 과연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가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따라서 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가상세계들을 현실로 다가올 것처럼 또한 이미 다가온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가 과연 가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1984>와 <에코토피아 비긴스> 두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1984>를 통해 조지 오웰이 그려내고 있는 비관적인 미래에 대해 디스토피아와 관련하여 우리 현대사회에 적용해 볼 것이다. 이후 어니스트 칼렌바크의 <에코토피아 비긴스>를 통해 에코토피아가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이야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디스토피아, 에코토피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의 미래 변화 가능성과 그 변화하는데 있어서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 두 가지의 선택가능성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한다.

## 2-1. <1984와 디스토피아>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윈스턴 스미스를 포함한 당원들은 모든 것을 국가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한다. 심지어 인간 개인의 본성과 사고까지 통제 당한다. 나는 먼저 이 통제와 감시에 대하여 집중해보았다. <1984>에서는 빅 브라더의 국가 경영을 쌍방향으로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 텔레스크린이 나온다. 개인의 집이든 사무실이든 곳곳에 위치해 있는 이 장치는 하나의 눈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항상 일거수일투족 감시한다. 이 텔레스크린을 우리 시대에서 적용하자면 스마트폰으로 대입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잠을 자던 밥을 먹던 스마트폰을 내 몸에서 잠시라도 떼어놓지 않은 채 생활화한다. 나 같은 경우에도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일 때,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현재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스마트폰이 텔레스크린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감시와 통제 장치일지도 모르겠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정보를 가져다줌과 동시에 개인 정보를 알게 모르게 가져가기도 한다. 또한 위치 기능 서비스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940년대에 <1984>를 집필한 조지 오웰은 자신이 상상한 텔레스크린에 적용된 기술이 실제로 상상을 넘어 개발될 수 있을지 과연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위에서 언급한 스마트폰의 기능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우선 스마트폰 속 세상에 대해 집중해보아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온라인으로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오프라인 상의 한계를 넘어 넓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이 SNS의 파급력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해졌다.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텔레스크린의 모습은 바로 '선동'이다. 우리는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SNS에서 빠르게 보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 이른바 '마녀사냥'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를 받은 개인이나 집단들을 꽤 발견할 수 있다. 밑에서부터는 이러한 선동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 속 디스토피아를 이야기 해보겠다.

“‘이분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절로 거기에 휘말려들기 때문에 끔찍한 것이다.”<sup>2)</sup>

<1984>에서 당원들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 ‘이 분 증오’프로그램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이의 적인 골드스타인의 모습을 중심으로 당의 배반되는 것들을 스크린에 비추면서 당원들의 증오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도구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오를 넘어서 집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기가 무섭게 느껴졌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당원들은 ‘이 분 증오’프로그램과 골드스타인의 존재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조차 가지지 않은 채 선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뉴스에 대해 큰 의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곤 한다. 왜냐하면 뉴스는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가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자신이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고 또한 마음만 먹으면 궁금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조작을 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대결구도로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가하는 데에 매스미디어가 선두로 동원된다. 물론 진실만을 말하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디어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미디어의 소유권이 대기업 즉 권력층에게 존재한다. 그 원인으로는 매스미디어는 이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데, 그 이익이 매스미디어 뒤에 감춰진 권력층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sup>3)</sup>

이 문장은 <1984>에서 자주 언급되는 ‘오세아니아’당의 슬로건이다. 이 것은 ‘영사’를 이루는 핵심인 이중사고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이중사고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것과 같은 양면성 사고이다. 이러한 이중사고가 머릿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나면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나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중사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국 사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왔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만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자리 잡아 버렸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존재가 집단으로 뭉쳐져 대중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통제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배가 침몰해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아이들은 그대로 그 말에 따랐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이후에 ‘만약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다른 많은 학생들은 자신도 명령에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sup>4)</sup> 이처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 인식할 수는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자유를 예속당한 것이다. <1984>에서 나온 것처럼 ‘2+2=5’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할 때, 나 혼자서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2) 조지 오웰, <1984>, 민음사, 2003, p 26.

3) 앞의 책, p 13.

4) 오준승, “주입식 교육이 친구들을 죽였습니다.”, 오마이뉴스, 2014.05.26.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2-2.<에코토피아 비긴스>와 에코토피아

*‘주위에 퍼져 있는 황량한 폐허 속에서 에코토피아는 작고 가녀린 희망의 섬처럼 보인다. 그곳의 거주자들이 다른 지구별 여행자를 집까지 안내해줄 봉황불을 밝힌 것만은 확실하다.’*<sup>5)</sup>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모든 생물들, 심지어 무생물마저도 아무런 높낮이 없이 인간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평등한 세계가 바로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 언급되는 생태주의 세계이다. 우리는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의해서 몸으로 그 심각성이 느껴질 때(미세먼지 등)가 많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편리함을 위해 문명을 개발해왔다. 예를 들면 자가용, 냉장고, 에어컨, 플라스틱 등으로 인하여 인간은 생활하는데 불편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이러한 문명들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문명의 배설물들에 의하여 갈등 더 나아가선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인간을 위해 개발한 문명들로 인해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나는 1980년대에 이 책을 쓴 어니스트 칼렌바크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 당시 예견하고 서술한 미래의 폐단이 현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물질주의 문명의 폐해가 심화될수록 에코토피아는 사람들의 자그마한 희망 속에서 낙관적인 대안방안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에코토피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져버린 많은 문명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우선 에코토피아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면서 소설 속에서 언급된 No More(10계명)에 대해 집중해보았다. 이 것은 생존자당원들이 에코토피아를 결성하기 앞서 만든 조항이다.

\* 다른 종을 멸종시키지 말라.

인간에 의해 발생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현재 수많은 다른 종들이 꾸준히 피해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무궁무진한 가해자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종들을 멸종시킬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우리에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생태주의세계, 에코토피아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종을 멸종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 자가용 타지 말라.

현재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몸에서 질환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을 이루고 있다. 늘어나는 자가용 사용에 비해 우리나라는 적당한 관리 조치조차 없어 보인다. 이 <에코토피아 비긴스>에서는 자전거가 도로를 활보하고 오히려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눈치를 받는 자동차금지지역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가용 사용을 무작정 금지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편안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한명쯤이야 괜찮다’라는 이기적인 합리화를 일삼으며 환경보호 실천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들의 생각들이 모여 다수를 이루게 되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5) 어니스트 칼렌바크, <에코토피아 비긴스>, 도솔, 2009, p 506.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심각한 현실 앞에 마주한 인간들은 더 이상 자신만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어쩔 수없이 환경을 고려해야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 2-3. 현대사회와 미래사회

나는 우리 현대사회가 미래에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로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와 에코토피아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절망과, 낙관적인 희망으로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디스토피아적 요소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현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발달해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시스템이 기술로 도입되고 나면 따라서 일자리 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 의해 소유될 것이고, 그에 따른 생산성은 소수 자본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독점적인 위치의 극소수 고용주들 사이에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디스토피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적 정보나 보안이 통제되고 이것이 즉 독점자본주의로 이끌게 된다. <1984>에서 통치자인 빅 브라더가 극중 실존인물인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채 당원들은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만약 미래에 인공지능이 빅 브라더와 같은 통치자로서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자기 판단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다시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확실한 대안방안도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의 발전만을 낙관하다가 디스토피아 사회에 이르게 된다면 이전으로의 재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기술의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위협도 가할 가능성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가 현재 꿈꾸는 유토피아는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환경오염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건강을 무사히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등 단지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움직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뚜렷한 미래나 자신의 유토피아 즉 이상향을 품는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다. 만약 우리가 <에코토피아 비긴스> 속 생존자당원들처럼 개인을 넘어서 집단적, 생태계적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나아질 미래의 희망 하나만으로 헌신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사회에서 더 이상 '없는 곳'을 뜻하는 쪽의 유토피아 개념은 유효하지 않아 보인다. 미래에는 디스토피아든 에코토피아든 한 형태의 사회가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많이 불편하더라도 해가되는 문명을 버리고 에코토피아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지 않고 기술적 발전만을 중시하는 디스토피아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 3. 결론

“우리는 헬조선에 살고 있다.”

‘헬조선’이란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의 접두어 헬(Hell)을 붙인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이다. 이는 신분사회였던 조선처럼 자산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반영한 것이다.<sup>6)</sup> 불안한 노동, 청년 실업, 늘어나는 빈부격차 이것은 남 일이 아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대한민국을 표현하기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현재 사회를 날카롭게 바라보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젊은 층(2030)은 절망과 무기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한국의 디스토피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사회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조차 없는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꿈꾸어 보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는 많은 고난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대들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헬조선’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생존자당원들처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에는 모든지 맞서 싸울 용기를 지니어야 한다. 계속해서 무기력한 상태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조차 없는 현실에 놓인 채 오로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 탓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젊은 층에게만 탈출을 위한 의식 혁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정신이 회복되어 이상적인 국가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여 나아간다면 비로소 '유조선(유토피아+조선)'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 4. 참고문헌

[기사] 이광형,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는 나라 만들자”, 중앙일보, 2017.10.16.

[도서] 비백 와드와, <선택 가능한 미래>, 글담, 2017

---

6) 헬조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